

창원특례시의회

<https://council.changwo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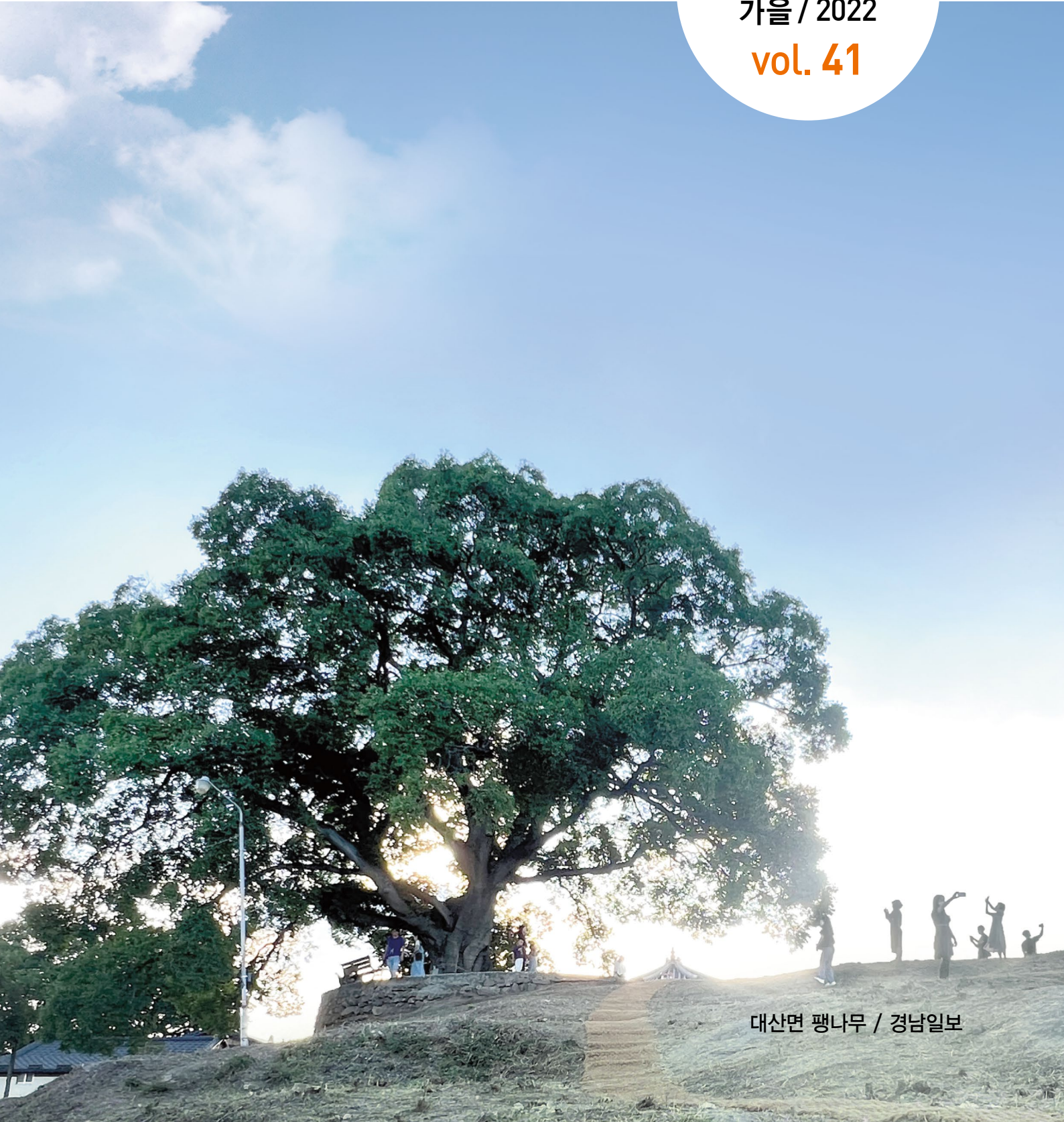


창원의회소식

열린마당

가을 / 2022

vol. 41



대산면 팽나무 / 경남일보




마산합포구

아	 김이근	 이천수	자	 서영권	 이원주	 홍응채
차	 박선애	 전홍표	 정길상	시민과 함께하는 향원특례시의회		

마산회원구

카	 남재욱	 이우완	타	 서명일	 황점복
파	 문순규	 박승엽			
 손태화					

비례대표

 김미나	 김수혜	 박강우	 오은옥	 진형익
--	--	--	--	--

의창구

가



권성현



김우진



최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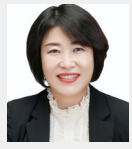
나



구점득



김묘정



김혜란

다



김남수



안상우

성산구

라



강창석



박해정



김경희



이정희

바



김경수



성보빈



한은정

사



김영록



백승규

마

진해구

하



김상현



이해련

거



김헌일



정순욱

너



이중화



최정훈

더



심영석



한상석

창원특례시의회소식 열린마당

가을 / 2022 vol. 41



창원특례시의회를
만나보세요

Contents

04 인사말

06 의원현황

12 의정활동

12 주요안건 처리현황

16 5분 자유발언

25 시정질문 및 답변

33 건의문

34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40 의원동정

40 의창구 의원포커스

48 의원연구단체 활동

50 포토광장

60 의원칼럼

66 2022년도 회기 운영계획

발행인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발행처 창원특례시의회 사무국
제작부서 창원특례시의회 의회홍보팀
주소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특례시의회
전화 055)225-5334



창원특례시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 현장중심의 의회 ”

연구하고 공부하는 “ 일 잘하는 의회 ”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 기본에 충실한 의회 ” 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희망찬 미래를 여는 창원특례시의회’를 슬로건으로 모두의 기대와 관심 속에 제4대 시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여건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누구에게나 편안한 친화도시 창원 건설은 우리 모두의 목표이자 완성해야 할 과제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외치며 출범한 민선 8기 창원시정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선도할 제4대 창원시의회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 의정목표로 생각하며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창원특례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들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이 행복한 창원, 희망찬 미래가 있는 창원시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이근**



의 장 단



의 장
김 이 근

국민의힘
창원아선거구
(구산,진동,진북,진전면,현,가포동)



부 의 장
문 순 규

더불어민주당
창원파선거구
(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의회운영위원장
구 점 득

국민의힘
창원나선거구
(팔룡,의창동)



기획행정위원장
김 경 수

국민의힘
창원바선거구
(상남,사파동)



경제복지여성위원장
박 선 애

국민의힘
창원차선거구
(월영,문화,반월중앙,안월동)



문화환경도시위원장
정 길 상

국민의힘
창원차선거구
(월영,문화,반월중앙,안월동)



건설해양농림위원장
권 성 현

국민의힘
창원가선거구
(동읍,대산,북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점득

국민의힘
창원나선거구
(팔룡,의창동)



부위원장
황점복

국민의힘
창원타선거구
(회원1·2,석전,회성,합성1동)



강창석

국민의힘
창원라선거구
(반송,용지동)



박해정

더불어민주당
창원라선거구
(반송,용지동)



서명일

더불어민주당
창원타선거구
(회원1·2,석전,회성,합성1동)



김묘정

더불어민주당
창원나선거구
(팔룡,의창동)



김영록

국민의힘
창원사선거구
(가음정,성주동)



이원주

더불어민주당
창원자선거구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 경 수
국민의힘
창원바선거구
(상남,사파동)



부위원장
김 묘 정
더불어민주당
창원나선거구
(팔룡,의창동)



김 현 일
국민의힘
창원거선거구
(경화,병암,석동)



이 천 수
국민의힘
창원아선거구
(구산,진동,진북,진전면,현,가포동)



문 순 규
더불어민주당
창원파선거구
(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김 상 현
더불어민주당
창원하선거구
(충무,여좌,태백동)



이 우 완
더불어민주당
창원카선거구
(내서읍)



안 상 우
국민의힘
창원다선거구
(봉림,명곡동)



김 영 록
국민의힘
창원사선거구
(가음정,성주동)



김 미 나
국민의힘
비례대표



진 형 익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
박 선 애**

국민의힘
창원차선거구
(월영, 문화, 반월중앙, 안월동)



**부위원장
서 명 일**

더불어민주당
창원타선거구
(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



이 종 화

더불어민주당
창원녀선거구
(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김 경 희

더불어민주당
창원마선거구
(중앙, 응남동)



구 점 득

국민의힘
창원나선거구
(팔룡, 의창동)



남 재 욱

국민의힘
창원카선거구
(내서읍)



홍 용 채

국민의힘,
창원자선거구
(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



김 남 수

더불어민주당
창원다선거구
(봉림, 명곡동)



최 정 훈

국민의힘
창원녀선거구
(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성 보 빈

국민의힘
창원바선거구
(상남, 사파동)



김 수 혜

국민의힘
비례대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길상

국민의힘
창원차선거구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부위원장
이원주

더불어민주당
창원자선거구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



손태화

국민의힘
창원파선거구
(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이해련

국민의힘
창원하선거구
(충무,여좌,태백동)



한은정

더불어민주당
창원바선거구
(상남,사파동)



정순욱

더불어민주당
창원거선거구
(경화,병암,석동)



최은하

더불어민주당
창원가선거구
(동읍,대산,북면)



강창석

국민의힘
창원라선거구
(반송,용지동)



이정희

국민의힘
창원마선거구
(중앙,웅남동)



김혜란

국민의힘
창원나선거구
(팔룡,의창동)



박승엽

국민의힘
창원파선거구
(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
권 성 현**

국민의힘
창원가선거구
(동읍,대산,북면)



**부위원장
박 해 정**

더불어민주당
창원라선거구
(반송,용지동)



백 승 규

더불어민주당
창원사선거구
(가음정,성주동)



심 영 석

더불어민주당
창원더선거구
(웅천,웅동1·2동)



전 흥 표

더불어민주당
창원차선거구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한 상 석

국민의힘
창원더선거구
(웅천,웅동1·2동)



황 점 복

국민의힘
창원타선거구
(회원1·2,석전,화성,합성1동)



김 우 진

국민의힘
창원가선거구
(동읍,대산,북면)



서 영 권

국민의힘
창원자선거구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



박 강 우

국민의힘
비례대표



오 은 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정활동

주요안건 처리현황

| 의결목록 |

제117회 임시회 (7.18. ~ 7.26.) | 총 12건



- 제1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 창원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원안가결]
- 법령불합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가결]
-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회성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 내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의결목록 |

제118회 제1차 정례회 (9.15. ~ 10.7.) | 총 38건



- 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원안가결]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상위법령과의 용어 통일을 위한 창원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인용 조례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의회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 일원화를 위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고운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신추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찬성의견]
-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찬성의견]
-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의정활동

주요안건 처리내용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이우완 의원 등 21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남재욱 의원 등 26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창원시 해병 전우회에 대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홍표 의원 등 26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창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홍표 의원 등 26명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급수시설의 감사의뢰 및 검사 결과 공표, 수질검사에 대한 사항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창원 시민이 이용하는 수도물의 정수시설을 개선하고자 함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영록 의원 등 12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농사를 위한 농사용 창고, 비닐하우스, 농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구청 담당자마다 기준이 달라 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같은 기준을 적용해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천수 의원 등 14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침체된 지역화훼산업에 필요한 지원 사업과 소비 촉진을 도모하여 화훼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종화 의원 등 27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주차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 조성사업 등의 범위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과 무단 장기 주차를 방지하고자 함



의정활동

5분 자유발언



제1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2. 7. 18.(월)



정순욱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공설시장의 정상화는 요원한가!

공설시장은 구청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감시·감독하는 행정의 부재로 시장의 목적에 벗어나는 업종이 들어오고, 상설시장의 기능을 잃고 있다. 심지어 점포가 자신의 것처럼 사고파는 매매행위가 생겼다. 공설시장은 시민들을 위해 저렴하게 임대해 좋은 물건을 팔도록 하는 서민 시장이다. 연간 20만 원 전·후로 구청에서 임대받아 다시 전대차 계약으로 월 70~120만 원까지 받는 등의 수익을 챙기고 있다. 이로 인해 전대차 세입자는 법이 보장하는 보증금 보호도 못 받고 코로나 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대차 문제는 전대차 계약자의 용기가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들을 올 12월까지 한시적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현 점포를 5년간 임대하여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규제방안은 없는지, 시의회에서도 공설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조례 재개정으로 이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길 기대한다.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69만6250㎡(약 21만615평) 규모로 특수목적법인 평성인더스트리아(주)가 설립된 2015년부터 시작해 2024년 완공이 목표다. 하지만 2019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이후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특수법인 건설사이며 대주주인 대우건설이 빠지고 대체 사업자를 1년 이상 찾지 못하고 있다. 평성일반산업단지는 산업용지와 공동주택용지, 지원시설, 공원시설 등이 함께 설계돼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모습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추진 성과가 전혀 없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 및 창원특례시 발전과 인구 증가를 위해 창원시가 공영개발을 실시해서라도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서마산 지역과 내서 지역의 경기 쇠퇴와 인구감소 방지를 위해 창원시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다. 현실을 직시하여 창원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한다.



남재욱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마산 IC 교차로 입체화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서마산C는 좁은 공간과 잘못된 설계와 공사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서마산C는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으로 진·출입로가 진입 차량과 진출 차량이 겹치는 기형적인 Y자형 구조로 역주행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경남경찰청 교통사고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서마산C 반경 300m 이내는 매년 평균 11건의 사고가 발생한다. 지난해 12월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2020년 12월부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인가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서마산C로는 최악의 교통영향평가가 나올 것으로 사료된다. 도시의 순기능 측면이나 도로의 순기능 측면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자족형 행정복합타운과 마산교도소 이전의 완성은 입체형 교차로 서마산C의 완성이다. 창원시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입체화된 스마트형 서마산C를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황 점 복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창원시 인구감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김 미 나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마창진이 통합되던 2010년 12월 기준 109만 명이던 창원시 인구는 12년 동안 6만여 명이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연말 기준 103만 2700명에서 올 6월 말 현재 6000여 명이 감소한 102만 6700명으로 인구 103만 명마저 붕괴됐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약 3년 안에 특례시 기준 인구인 100만 명마저 붕괴가 예측된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교육정책이나 창원시만의 특화사업이 개발·구축돼야 한다. 분야별 세분화된 정책이 연구되고 있겠지만, 일자리-교육-의료시설-복지 등의 순으로 골고루 갖추면서 이행돼야 한다. 창원시는 지역인재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연계해 국제고나 자사고 유치 등 질 높은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지역인재를 양성해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양질의 기업 유치를 위한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교육·주택·인구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

창원시 대형사업의 정상화와 원전산업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지난 7월 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의결했다. 2030년까지 원전 28기를 가동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골자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공사의 신속한 재개에 120억 원어치 일감 조기 발주 등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조치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전산업의 메카인 창원시는 새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창원시 소재 280여 원전부품업체들의 재가동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우선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부터 재검토해 정상화시켜야 한다. SM문화복합타운의 정상화도 창원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창원경제 몰락의 서막을 올렸던 원전업체의 조기 정상화와 도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스타필드, SM문화복합타운,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 등 대형사업들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손 태 화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창원특례시의 수돗물 신뢰를 회복하자!

지난 7일 석동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고를 수습하는데 급급해 뒤늦게 사고발생을 알린 것은 안타까운 대처가 아니었나 싶다. 여태껏 창원시의 수돗물 생산기술과 수질은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깔따구 유충 사고로 인해 그 명성도 물거품이 됐다. 이제부터 수돗물의 신뢰를 회복시킬 대책을 마련해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 마련과 신뢰성 있는 소통통로 마련이다. 둘째, 생산시설 현대화 및 인력의 전문성 강화다. 셋째, 환경부와 정부에 책임과 보상요구해야한다. 이번 창원시 석동 정수장의 '수돗물 유충 사태'는 수돗물 관리 행정력 부족으로 인한 관재(官災)라는 지적을 무시할 수 없다.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제공이라는 창원특례시의 기본을 놓쳤다. 수돗물 행정의 신뢰를 조속하게 회복되길 바란다.



전 홍 표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창원특례시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언

창원특례시는 기계공업 도시로 알려졌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서 농가규모 전국 3위인 도농복합도시다. 창원시는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과 대규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힘쓰고 있으며 농업행정 수준은 월등히 앞선다. 그러나 1998년 농업조직 통폐합을 유도했던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창원시도 농업행정과 지도조직을 통폐합한 후 24년간 지속된 조직은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농촌지도 본연의 업무인 교육훈련과 기술보급은 농업행정에 밀려 후순위가 됐다.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농촌진흥법 제32조에 의거 '이 법에서 정한 사무 이외에는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도 현재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농업행정 업무는 시 본청에 국을 두고,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소로 편재해 전문기술력 보급에 주력해야 한다. 창원시 8만 농업인의 농업행정 업무가 원활할 수 있도록 시 본청에 농정국을 설치해 주길 바란다.



이 천 수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제1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6.(화)

전기자동차 인프라 확대를 위한 보조금 국비, 도비 100% 집행을 위한 창원시 보조금 배정 및 조기 집행요구

창원특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의거 매년 2월 보급 촉진을 위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법을 근거로 국도비 230억 원이 편성돼 있다. 시는 2차 추경에 63억 원 이상을 편성해야만 국도비 반납없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법과 조례에 따르면 시는 84억 원 또는 94억 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경남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는 본 예산 편성 없이 1차 추경 25억 원을 편성해 매년 초 전기차 보급 지원 실적이 전무하다. 우리 시 친환경 자동차 예산 편성은 보급계획 대비 고작 30% 수준이다. 인근 진주와 밀양은 94%, 김해시는 96%, 양산시 108% 다. 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은 시민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인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 그리고 시민의 갈망인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위해 보조금 정책을 세밀히 정비해 주길 바란다.



서 명 일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인구감소와 관련한 임신부 지원정책에 대하여

창원특례시는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인구 유입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인구청년 정책에 6734억 원을 투입한다. 출산·보육, 청년·일자리, 주거, 노후, 인구 대응 등 생애 전반에 걸쳐 6개 분야 246개 사업을 추진중이다. 2022년 결혼·출산·육아 정책가이드에 따르면 출산정책이 15개, 임신정책이 14개다. 임신정책 14개 중 병원비 관련이 10가지인데 산부인과 진료비,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난임 관련 시술 및 진료비 지원 등이다. 그 외 엽산제, 철분제 지원과 올 4월부터 시행된 음식점 할인,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도 있다. 이와 더불어 창원시 임신부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을 제안한다. 현재 여주시는 30만 원 내에서 진료 1회당 5만 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1인당 70만 원의 교통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창원특례시에 걸맞게 복지 또한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져야 한다. 창원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창원시민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주길 바란다



김 모 정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파크골프장 관리 운영에 대한 의견



홍 응 채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파크골프는 일반골프와 달리 남녀노소 구분 없이 건강을 가꾸는 생활체육이자 복지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최근 늘어난 수요를 따라가기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며 열악하다. 지난 6월 23일부터 3일간 파크골프 신입회원 접수가 마산, 창원, 진해에서 있었다. 협회에 등록된 회원 수가 현재 약 4500명인데 이번 신청회원만 무려 4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앞으로 더욱 늘어 날 것이다. 또한 협회에 3일간 입금된 입회비만 7억6000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 시민이 즐기고 쉬는 공원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데 창원시민은 왜 이렇게 많은 입회비를 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시민의 건강관리 시설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맞게 관내 여러 곳에 소규모 시설을 만들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관리하는 시설공단이 직접하고, 각 구장 클럽별 운용은 큰 틀을 정해 협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 건강권과 행복권을 지켜줄 것을 건의한다.

창원시 학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촉구하며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창원시 공영주차장은 59개소 5223면이다. 그 중 마산합포구는 11개소 703면으로, 창원시 전체 주차 면수의 13.4%에 불과하다. 이는 마산합포구 산호동, 교방동, 합포동을 비롯한 구도심 지역의 공영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아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웃간 갈등, 분쟁을 일으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은 주차 문제로 삶의 터전을 두고 떠나야 하는 실정에 직면해 있다. 단속만이 대안이 아니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주차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는 늘어나는 주차 문제와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주변 인근 주택 등을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조기에 조성하고 주변 상권을 찾는 고객들과 지역주민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서 영 권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청년 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센터 활용 방안 제언

청년센터는 청년의 정책 참여 및 행정지원, 상호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지역특화연구 및 조사 등을 진행하는 곳이다. 창원특례시는 청년비전센터를 2017년 8월부터 운영 중이다. 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한다. 먼저 기회 제공의 확대다. 청년이 다양한 경험을 주도적으로 하고 창직 활동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음은 접근성 향상이다.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접근성 좋은 곳으로 센터를 이전해야 하며 공간 확대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 확대다. 우리시 청년비전센터는 개소 이후 매년 5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5년간 물가 및 인건비 상승을 볼 때 적정 청년에게 지원되어야 할 사업비는 감소했다. 청년 문제가 심화되고 청년 정책 수요가 다각화되고 있는 만큼 사업비는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인력구조도 재편되어야 한다. 특히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진형익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주민 주도형 제안사업'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주민들이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중 '주민 주도형 제안사업'은 창원특례시에서 매년 140여 개 사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경화역 쉼터 조성 사업에서 맹점이 발견됐다. 사업명은 '자연과 문화가 있는 경화역 쉼터 조성 사업'이다. 시작은 개인명의로 제안되어 진행됐으나 제안자가 '경사모'로 변경되고, 처음 제안과 다르게 사적으로 변형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개인이나 단체가 사적 사용한 부분을 지적한다. 첫째, 경비사용 문제다. 밴드 구성원만이 입을 수밖에 없는 밴드명 조끼 30매를 66만 원에 제작했다. 둘째, 일반적이지 않은 행사는 밴드장의 취향에 맞춰 진행됐다. 행사 후 물품도 개인과 밴드에 보관했다가 본의원의 지적으로 주민센터에 보관 중이다. 하지만 1년 넘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해 사전심사와 사후결산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이나 사적인 단체에 투입된 비용은 책임을 물어 환수되어야 한다.



정순욱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도시 외곽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며

현재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은 성산구 반송로 149에 있다. 이곳은 4만여 명의 반송동 주민들과 인근 용호동 1만50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반송시장과 붙어 있어 매우 번잡하다. 연수원이 설립된 34년 전과 비교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밀집으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심각하다. 본 의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교통문화연수원은 주로 도시 외곽에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에,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부산시 북구 금곡동, 전라남도 강진군 월랑리에 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도시 외곽지역이며 차량 소통이 원활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다. 그동안 연수원을 이전하지는 못 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제 창원특례시에서 연수원 이전 협의를 경상남도와 시작해야 한다. 시에는 접근성과 활용도가 뛰어난 대체 부지가 얼마든지 있다. 연수원의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민숙원사업이다. 모든 행정,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한다.



박해정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는 창원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하여!

우리 사회는 여전히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이고, 서열 위주의 입시환경에서 학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분위기다. 청소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이뤄져야 한다. 창원특례시는 지난 2년간 청소년의회를 운영·지원했다. 청소년의회 의원들은 성공을 목표로 삼지 않고 공적인 일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앞으로 성인이 될 청소년들을 지금 어떻게 준비시키는가는 미래의 사회발전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자율적 사고의 형성과 합리적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실행의 기회가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공간이 창원특례시 청소년의회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의 참여는 기성세대의 사고 수준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정치적 결과물로서가 아니라 행동하고 학습하는 과정으로서, 자기 경험과 사유를 통해 재구성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청소년 참여 활동 기회가 사회 전반에 걸쳐 지지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전 홍 표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창원특례시 아이돌봄, 경력단절로부터 안전한 워킹맘 지원정책을 만들자



오 은 옥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창원특례시의 영유아 인구추세를 보면 2022년 7월 기준 3만7197명이다. 영유아 인구수는 2015년 5만9419명 대비 2만2216명 줄어들었고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2021년 기준 53만8700명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의 여성은 22만3600명이며 2015년 20만6500명, 2021년 22만36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과 함께 맞벌이 가구 돌봄 지원을 위한 워킹맘 워킹대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경력단절 여성이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 결혼, 임신·출산, 가족돌봄, 자녀교육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창원특례시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정책적인 길과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과 통합관리체계 또한 마련돼야 한다. 단순한 예산지원보다 여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절실하다.

합성동 상권 활성화 대책 촉구

마산지역의 중심상권인 합성동이 활력을 잃고 침체의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상권은 한번 붕괴되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 너무나 큰 사회적 비용과 노력을 지불해야 한다. 창원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합성동 상권을 지키고 살리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시는 스타필드와 해양신도시 개발이 합성동 상권에 미칠 영향을 조사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2019년 수행된 합성동 상권활성화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기초해 현실 가능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합성동 지하상가 활성화 대책 마련을 적극 촉구한다. 합성동 지하상가는 창원시가 (주)대현프리에 위탁한 시설이다. 창원시는 임대료 감면이나 사용·수익허가 기간 조정 등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다방면의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합성동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창원시 행정의 보다 책임있는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문 순 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위한 RE100 정책 수립 필요

RE100이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전력을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기 위한 국제 캠페인이다. 2021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는 전체 발전량의 8% 정도다. 이는 OECD국가 평균(31.3%)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22%), 중국(29%)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추진하는 글로벌기업들이 최근 한국 대기업에 RE100 관련 계획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관내 기업들도 심한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청원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은 관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다. 우리 지역 여건상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주차장, 공공기관, 산업단지 등을 활용한 중·소규모 태양광 발전 산업 확산 계획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기업의 RE100을 지원할 전문 조직 구성 등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이종화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 10. 7.(금)

편의점식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이 있는가?



김미나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창원특례시에는 평생학습센터 26개, 작은도서관 26개, 새마을문고 12개가 운영되고 있다. 평생학습센터,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등 64곳의 운영비만 연 16억 원이 지출된다. 기타 사업비 포함 18억1700만 원이 새로 있다. 1일 이용자 수 20명 미만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한데 운영비와 도서 구입비는 매년 똑같이 지원되고 있다. 도서관도 다양하지 않고 같은 단체가 여러 곳을 위탁 운영하기도 한다. 부실하고 이용자 수가 적은 도서관은 통폐합하여 통합형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낫다. 대대적인 통폐합과 운영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제일 문제가 사서들의 거취 문제겠지만 고통을 통감하더라도 조절을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일제 정리 기간을 두고 활성화하지 못한 곳은 통폐합하기를 제안한다. 특히 새마을문고처럼 운영실적이 저조한 곳은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면 사서도 필요없고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도서관 장서 배치도 신경 써서 오해받지 않도록 관련 카테고리는 검색하지 않아도 찾을 수 있는 자리에 균형 있게 배치해주길 바란다.

마산해양신도시 창원시 제2청사 건립 촉구와 민주주의전당 재설계를 제안하며

현재 창원특례시 본청 청사는 1980년에 건립해 43년 된 오래된 건물로 현재 행정수요와 맞지 않는다. 2개의 별관이 건립되었으나 여전히 업무공간이 협소하다. 또한 청사 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민원불편과 행정서비스 질적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 향후 특례시로서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증가하는 공무원 수, 업무량을 반영해 마산해양신도시 공공부지에 제2청사 건립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시의 균형 발전 적합성과 마산해양신도시의 경쟁력 강화, 시민 편의를 위한 접근성 향상, 공무원들의 능률적인 업무공간 확보와 행정서비스 제고 등을 고려한다면 제2청사 건립이 꼭 필요하다. 아울러 민주주의 전당도 시민의 관점에서 조성되어야 한다. 현재 민주화 유적지와 시설만 약 14곳 있다. 대부분 전시위주의 시설물로 되어 있어 시민의 발길도 닿지 않는다. 새로 지어지는 민주주의 전당을 전시만을 위한 건축물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함께 제공하는 복합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재설계를 제안한다.



정길상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창원형 1호 위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출산을 앞둔 상당수의 가정이 산후조리원 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경남 18개 시군 내 산후조리원은 불과 28곳이며 이마저도 사업성이 부족해 창원, 김해 등 단 6개 시에만 있다. 게다가 통영 유일 산후조리원은 폐업 위기를 겪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다. 2013년 전국 최초로 제주 서귀포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긴 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지난 6월 밀양시에도 생겼다. 우리시는 가용한 예산 부족 등 여러 문제로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은 다소 부담된다. 이를 고려해 창원형 1호 위탁 공공산후조리원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기존 설비가 잘 갖춰진 산후조리원을 이용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 운영한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육아에 대한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는 그 첫 걸음은 출산 부담 감소가 시작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은 물론 공공산후조리원 차등적 의료급여 지급으로 청년들이 결혼해서 살고 싶은 창원,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창원,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는 창원특례시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김영록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독주택지 도시계획 변경

2002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창원시는 인구 30만 명으로 계획되었다. 현재 창원특례시 인구는 103만 여명으로 계획된 수준을 넘어섰다. 그때의 도시계획은 이미 의미를 상실했지만 규제는 계속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속 단독주택 전용주거지역 주민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 보통 주택 수명을 30년 정도로 본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택은 45년간 방치되고 있다. 노후화된 집은 팔리지 않고, 신축하려 해도 건축 규제로 시도조차 못한다. 이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심은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창원 원도심 단독주택지는 의창구 70%, 성산구 30%로 5만4000여 세대가 해당된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전용주거지역의 규제 완화와 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요청하고 있다. 단독주택용지의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면 경제활성화는 물론 주거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창원특례시에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민들의 숙원을 이뤄주길 바란다.

태양광 폐패널 관리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에 대한 기대도 높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수명이 존재한다. 결국 폐기물 형태로 폐패널 등이 배출되고 발생량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패널은 종류에 따라 납뿐만 아니라 발암성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 2차 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창원시의 관련 조례를 찾아보다 지원에 관한 내용은 있으나 처리 등에 대한 내용은 없거나 미흡하다. 따라서 시가 태양광발전설비와 관련된 시설들을 잘 운영해볼 의지가 있다면 여러 문제점과 동향 등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태양광발전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폐패널 등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까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해당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해당 지원사업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강창석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보호수와 노거수는 역사적·생물학적 가치가 높아 특별한 지정 및 관리가 필요한 자산이다. 보호수는 경남도가 지정해 창원시에서 보호·관리하며, 노거수는 시가 지정부터 보호·관리까지 한다. 현재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은 87본이며, 노거수로 지정된 수목은 한 본도 없다. 예전부터 노거수라 인정되는 수목이 70본 정도 있을 뿐이다. 창원시의 보호수·노거수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로 방치·훼손되고 있다. 한 본의 나무를 관리하는데 평균 200~4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나 창원시 예산은 연간 5000만 원 정도로 150주가 넘는 보호수와 노거수를 관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2016년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가 제정된 이후 단 한 본의 수목도 노거수로 지정되지 않아 조례의 존립 의미가 상실되고 있다. 보호수·노거수에 대한 보호·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거수 지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조례에 따라 5개년 관리계획과 매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심의위원회 운영 등 보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원 주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 영 석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진해신항 컨테이너 야적장 난립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며

진해신항 주거지역에 컨테이너 야적행위가 이뤄진 시기는 부산항 도시개발이 본격화된 2019년부터다. 배후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주거지역까지 확대·설치되는 실정이다. 컨테이너 차량은 화물 적재 시 최대 40톤까지 운행 가능한 초대형 차량이다. 운행 시 비산먼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도로파손, 교통정체를 일으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항만도시에서는 조례를 통해 주거지역 500미터 이내, 하천 100미터 이내에 컨테이너 야적장을 불허하는 조항을 명기하고 있다. 창원시도 정기적 관리실태 점검과 피해방지 계획을 수립해 주민피해 최소화 및 환경오염을 막아주길 바란다. 배후부지가 확보되어야만 진해신항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부족한 항만배후부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국토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 만약 항만배후부지를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진해신항 개발 수혜는 부산과 김해가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항만개발에 따른 주민피해 예방 및 민원 해소를 위해 신항사업소를 다시 설치해주길 바란다.



의정활동

시정질문 및 답변



손태화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창원시 청사 신축 필요성 및 계획 관련

- Q** 현재 창원시의 본청과 의회 청사가 100만 대도시 창원 특례시의 위상과 업무의 효율적 측면에서 적당하다고 보나? 대도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향후 개발 방향과 최종 완성은 언제쯤?
- A** [자치행정국장]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서 일부 시설물 신축·증축하다 보니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효율적인 측면과 시민이용 측면에서도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 Q** 청사와 의회 청사의 신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다면?
- A** [자치행정국장] 신청사 신축은 기초 용역조사를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을 마련,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야 한다. 청사를 기준으로 적정 사무환경 진단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Q** 청사 신축에 2,500억 원 정도 규모가 예상되는데, 재원 마련이 요원해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사건립기금, 특별회계 등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 A** [자치행정국장] 중장기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종합적인 용역을 통해 건립 재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청사건립에 대한 준비가 지금부터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갖고 검토하겠다.
- Q**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업무가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 A** [시장] 직원 근무 환경을 살펴봤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과제다.

마창진 시외·고속버스터미널 통·폐합에 대해

- Q** 창원종합터미널은 부산방면 노선을 제외하고 대부분 합성동을 경유하고 있으며, 마산 고속버스터미널 역시 경전선 복선화와 kx 노선 준공으로 승객이 급감하고 있다. 최소 이 3곳 시외버스터미널의 통합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2022.
9. 29.(목)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A** [안전교통건설국장] 민간이 운영 중인 마산 고속 및 시외 버스터미널과 시에서 운영 중인 창원종합터미널은 민간 업체와 공공기관 간 터미널 통폐합에 대한 법적 검토와 노선 조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 Q** 12년 동안 협의조차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 A** [시장] 지금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진단이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서마산C 진출입로 개선 관련

- Q** 창원의 관문인 서마산 IC 교차로 문제와 관련해 얼마전 국회에 설계용역비 계상을 요구한걸로 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 A** [안전교통건설국장] 국회를 방문해서 용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안을 만들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대기오염 민원

- Q** 마산회원구 봉암동 자유무역지역 2공구에 소재한 KC환경서비스 창원사업부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의 연속식 일반소각이 연간 1만 톤이다. 이로 인한 대기오염 민원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 A** [환경도시국장] 고정식 대기약취 감시시스템 1기를 설치하여 7개 항목 오염물질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향후 1기를 추가 설치해 24시간 감시하겠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도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마산해양신도시개발 향후 추진 방향 및 완성 연도

- Q** 현재 추진 중인 마산해양신도시는 창원이 대도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향후 개발 방향과 최종 완성은 언제쯤?
- A** [시장] 부지와 건물조성을 분리해서 추진 하고자 한다. 부지 조성을 2024년까지 마무리 하고 연말까지는 큰 방향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 건물조성은 면밀히 살펴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된 후 추진하겠다. 큰 문제가 없다면 빠른 시간 내에 착수해 편익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A



정순욱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진해 경화공설시장 문제점에 대하여

- Q** 진해 경화공설시장을 가본 적 있는지?
- A** **[경제일자리국장]** 여러 번 현장을 나갔다.
- Q** 현재 경화시장 불법 전대 행위가 언론에 나왔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A** **[경제일자리국장]** 불법 전대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건전한 상거래상 좋지 못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Q** 불법 전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나?
- A** **[경제일자리국장]** 용자나 전대 사용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불법 전대에 따른 행정 조치, 사용허가 조치 등 법적 조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Q** 경화시장 내의 점포 규모는?
- A** **[경제일자리국장]** 올 1월 기준으로 144개 점포에 사용권자가 81명이다.
- Q** 경화시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 불법 전대는 몇 명이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A** **[경제일자리국장]** 9월 23일 기준 21개 점포가 불법 전대자로 나왔고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 Q** 점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사후 확인만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상적인 공설시장을 만드는데 전수 조사가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A** **[경제일자리국장]** 사업계획서 관련된 조례를 의회에서 개정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생계유지 부분을 염려하고 있다. 유예기간을 준다는지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있다.
- Q** 경화역 불법 전대 전수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 A** **[시장]** 오랫동안 잘못된 관행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행정력으로 바로 잡는 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정상적인 공설시장 기능이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
- Q** 불법 전대자라고 밝히며 제보를 한 분들로 인해 서류상 떠돌던 문제들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이들을 공익제보자로 보실 생각은 없는지?
- A** **[시장]** 공익제보자는 관련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어 적용 여부는 확인해 봐야한다. 다만 최대한 피해가 덜 가도록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겠다.

진해 경화 공설시장 손실보상금 지급 관련

- Q** 얼마 전 정부에서 손실보전금을 점포 사용자에게 지급했다. 장사를 하지 않는 불법 전대자가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A** **[경제일자리국장]** 손실보전금은 창원시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했는데 조건이 미충족되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Q** 불법 전대자가 받았다면 중기청에 고발을 해서 5배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있지 않나?
- A** **[경제일자리국장]** 손실보전금을 잘못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5배의 부과금을 부과하는데 곧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전달될 것이다. 그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진해 경화 공설시장 청소비 징구 문제

- Q** 현재 마산 번개시장은 난전에 청소비를 받지 않고 있다. 진해구에는 거의 600개 정도 난전에 청소비를 받고 있다. 2천 원씩 하더라도 5일 장이면 한 달에 6회 정도 된다. 돈의 규모는 천문학적이다. 자금 정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할 용의는 있는지?
- A** **[경제일자리국장]** 상인회에서 징구하는 청소비 금액이 한정돼 있지 않고 점포별로 다르다. 상인회에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라고 적극 권유하고 건의하겠다. 또한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해당 부서와 잘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Q&A



전 흥 표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깨끗한 수돗물 공급, 수질사고 예방 관련 현황

- Q** 북면에 있는 스포츠센터 한 곳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진짜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나?
- A** [시장] 크게 보면 유충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지 못한 관리 부실이 있고, 그 안에 유충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들을 관리 못한 면이 있었다.
- Q** 창원시는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 원수를 환경부에서 공급받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이 최근 10년간 얼마나 지출됐는지 알고 있나?
- A** [시장] 연 평균 142억 원 정도 납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Q** 낙동강 원수대금으로 연 150억 원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나?
- A** [시장] 일반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생각한다.
- Q** 물이용분을 받아서 쓰는 사용처와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 A** [시장] 우리시의 경우에는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과 여러 가지 주민지원사업에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 Q** 최근 3년간 칠서정수장과 석동정수장의 7월 취수구 원수의 녹조 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있나?
- A** [시장] 녹조 농도는 그해의 강수량이라든지 여러 요인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올 7월은 특히 가뭄이 심해 더 많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Q** 환경부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창원시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관, 정부에게 대금을 내는 것 같다. 유충 발생 원인의 하나로 낙동강 원수가 지목되고 있다. 수질 개선을 위해 창원시가 요구하거나 취하는 행동은?

- A** [시장] 중앙정부에 원수를 받을 때 꼭 체크해야 될 항목들을 잘 체크해서 더 요구하도록 해 보겠다.
- Q** 원수 수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취수탑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고민과 정책은?
- A** [시장] 물의 수위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서 물을 받아서 정수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년도 예산사업에 취수탑을 어디에 할 건지도 포함해 섬세하게 처리하겠다.

석동정수장 유충 사고 관련

- Q** 이번 수돗물에서 유충 깔따구가 나왔다는 알림이 늦었다. 거기에 대한 경위는?
- A** [시장] 조금 늦게 시민분들께 전파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사과한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시민들에게 알리겠다.
- Q** 시민을 위한 구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 A** [시장] 비상 급수는 보강을 하고 있고 연내에 비상급수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민 여러분들이 염려를 안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확실히 하겠다.
- Q** 유충이 가장 잘 번성하고 있는 정수장 여과지 활성탄층의 조사 현황을 3년 동안 언제, 몇 번 정도 하는지 혹시 알고 있나?
- A** [시장] 기본적으로 매년 1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급속 여과지는 1회 했지만 활성탄 여과지는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5~6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Q** 창원시는 깔따구 유충 재발 방지와 수돗물 신뢰성 회복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그 대책의 주요 내용은?
- A** [시장]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물 자체를 식품에 준해서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리고 유충이 들어올 수 있는 물리적 차단은 긴급하게 차단막을 설치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 각 정수장별로 물을 상호교류해서 쓸 수 있도록 환경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물위위원회 민간참여를 늘리고 일반 민간인들이 상시로 물 수질이 어떤지 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
- Q**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돗물을 만드는 이 공정조차도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수돗물을 만들 수 있도록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인력에 대한 소프트웨어 지원도 마련해 줘야 한다.
- A** [시장] 인력도 추가 확충하고 전문가를 더 투입하도록 하겠다.

Q&A



김 현 일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경화역 공원의 보전과 확대 방안에 대해

Q 관광자원으로 진해군항제와 경화역 공원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지

A **[문화관광체육국장]** 진해군항제는 우리 시 3대 축제의 하나로, 2019년도 군항제 기준으로 약 2,345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그리고 경화역은 여좌천과 함께 진해군항제의 대표적 벚꽃 관광명소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Q 경화역 부지 안 가용공간이 5천여 평 정도로 알고 있다. 공원이 넓어진다면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휴식처가 될 것이다.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체계적으로 공원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A **[문화관광체육국장]** 경화역 인근 부지는 국유지로 철도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토지사용권 취득 및 체계적 공원 개발을 위해서는 공원시설 결정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해 푸른도시사업소와 협의검토하겠다.

Q 공원의 보전은 자연 상태 그대로 유지·발전이 최상의 방안이라 생각한다. 경화역 공원 서쪽 입구에 거대한 4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이것은 경화역 공원의 발전과 보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나?

A **[문화관광체육국장]** 경화역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시재생도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

경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 관련 문제점 및 해결방안

Q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어떤 경우에 실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A **[환경도시국장]**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과 도시경쟁력 회복을 중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한 유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연계하여 도시재생 거점건물을 건립하는 점단위 사업이다.

Q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있어서 주민협의체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주민협의체구성은 어떤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A **[환경도시국장]**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협의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역할이다. 구성은 창원시 조례에 따라 공고를 통해 모집하며 센터장이 심사를 통해서 선정한다.

Q 경화동 재생사업에 있어서 주민협의체가 세 번 등장한다. 한 동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세 번의 협의체가 있는 건지?

A **[환경도시국장]** 지역주민들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 종합적으로 바른 방향을 잡도록 다시 한번 숙고하겠다.

Q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경화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어떤 단체에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추진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바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A **[환경도시국장]**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한 강제조항은 없지만 주민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했지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폭넓게 듣고 반영해서 활력을 잃어가는 경화동이 공동체의 문화와 가치를 공유하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Q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포함하여 창원시의 국비 공모사업 신청과정에 사실과 다른 자료나 거짓인 자료로 신청이 되었다면 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

A **[환경도시국장]** 거짓 자료로 제출된 공모사업은 선정될 수 없다고 본다. 혹 그런 경우 감사 부서의 조치 후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 판단한다.

Q 인정센터의 운영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한다고 계획서에 적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정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A **[환경도시국장]** 2년도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어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시설 운영하도록 하는 권장사항이 삭제되었다.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바르게살기, 부녀회 등 마을주민단체 중에서 공모하여 위탁·운영 하겠다.

Q 주민의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많은 지역민들의 참여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민에게 필요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채워져야 한다. 그러나 애초에 잘못된 자료와 비상식적인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논의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지역 주민들이 소외된 채 이뤄진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며 무엇을 위한 사업인가?

A **[시장]** 지역 협의체의 대표성 문제, 그리고 공모 절차상에 하자 여부 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제일 근본적인 것은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오게끔 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복원이다. 지금 경화역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커뮤니티를 복원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더해보겠다.

Q&A



구 점 득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 지원 현황 및 청년정책

- Q**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불모산 계획지구는 2025년까지 사업 완료될 수 있나?
- A** [미래전략산업국장] 11월 도시계획 심의가 완료되면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으로 보고 2025년이 목표다.
- Q** 불모산지구 GB 지역 해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투자 비용이 많아지면 산단 분양금액이 높아진다. 대안은 있나?
- A** [미래전략산업국장]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간다. 비용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 Q** 50년 넘게 GB 지역으로 피해 입은 주민들 두 번 힘들지 않아야 한다.
- A** [미래전략산업국장] 조금 딜레이 된 것은 사실이며 계획된 예산도 증가했다.
- Q** 보유특허, 기업 수, 매출액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조하다. 문제점이 뭔지?
- A** [미래전략산업국장] 창원 강소특구는 특징이 있다. 전기 연구원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기계산업을 융합하는 개념이다. 새롭게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출발이 늦은 게 사실이다.
- Q** 다른 시도와 같이 기업의 연계성을 높인다든지 보완책은 있나?
- A** [미래전략산업국장] 전기연구원이 국가출연연구기관이라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기술사업화를 통해 기술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Q** 지난 3년간 인재 양성 지원사업은?
- A** [미래전략산업국장] 지역대학에서 유치하는 각종 연구개발 인력사업에 경남도와 창원시가 매칭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 Q**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학에 쪼개기, 나누기 식으로 계속 사업을 할것인가?
- A** [미래전략산업국장] 통계상 보면 쪼개기, 나누기일 수도 있지만 각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의 사업들은 수요가 다양하다. 앞으로 방위산업, 원자력, ICT 산업 쪽으로 특화 시켜서 인재를 더 많이 양성하도록 조정해 보겠다.

산업진흥원 관련 현황 및 운영지원 관련

- Q** 설립 당시의 인원 현황과 지금 현황에 대해 비교 설명해달라.
- A** [미래전략산업국장] 2015년 20명 정원으로 시작해 현재 61명이다
- Q** 인력 현황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인력 정원에 대한 보강 기준은 있나?
- A** [미래전략산업국장] 기업의 요구와 수요에 따라서 업무량이 늘어났고 필요인력을 보고하면 시가 판단해 정원을 승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 Q** 채용 당시 연구원으로 채용, 현재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인력이 많다.
- A** [미래전략산업국장] 일부 직원에 한해서는 순환보직도 하고 있다.
- Q** 강소기업육성자금 받은 기업이 몇 개인가?
- A** [미래전략산업국장] 92개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다.
- Q** 총 980여 개 기업체에서 지원을 했는데 특정기업들이 중복 지원되었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A** [미래전략산업국장] 창원산업진흥원과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유사한 건 제외하고 페널티를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 Q** 외부 용역이 많이 늘어났다. 이유는?
- A** [미래전략산업국장] 용역 수행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 다른 외부기관에 채용역을 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역량만큼 유치하고 역량만큼 일을 하는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창원스타필드 규모 확대 변경 필요성에 관해

- Q** 스타필드의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 A** [시장] 건설은 진행되고 있고 대형점포개설허가는 아직 안 된 상태이다.
- Q** 스타필드가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좋겠는가?
- A** [시장] 문화를 접목해서 앞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
- Q**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발전이 제일 큰 문제이지 않나?
- A** [시장]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작년 7월부터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Q**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된걸로 안다. 교통체증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은? 보완작업이 필요한가 아닌지?
- A** [제1부시장] 교통영향평가에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주변 차량의 흐름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운영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Q&A



심영석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문제점 및 대책

- Q** 2009년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공모 당시 소멸어업인생계대책부지에 대한 고지를 누락시키고 민간사업자와 웅동지구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것이 맞는지?
- A** [해양항만수산국장] 당초 경남개발공사 주관으로 공모를 시행했다. 처음 협약 체결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가 2012년도 우리 시와 생계대책위간 구체적 협약 체결 이후 2014년도 협약에 포함했다.
- Q**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 A** [해양항만수산국장]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본다.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중단 사유 중 하나가 생계대책민원이 당초에 없었던 것과 경남도에서 글로벌테마파크를 중복 추진을 했다는 것이다.
- Q** 웅동지구 개발사업 중단 이유 중 하나가 창원시와 개발공사 사업의 관리·감독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의 실제 계획 변경 요구인 시행명령을 세 차례나 미이행하면서 중단된 것도 맞나?
- A** [해양항만수산국장] 사업 중단사유는 민간사업자가 임대하고 있는 토지의 사용기간 연장이다.
- Q** 당시 경자청에서 창원시의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거부한 이유가 시행명령을 하달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연장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있다. 타당한가?
- A** [해양항만수산국장] 민간사업자와 경남개발공사 그리고 창원시가 토지사용기간 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가 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다. 우리시는 기간연장에 동의를 했는데 경남개발공사와 사업시행자는 동의를 안 했다.

- Q** 민간사업자는 사업기간 연장 후 사업의지가 있었다고 보는지? 또한 사업협약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하나?
- A** [해양항만수산국장] 토지사용기간에 3자가 합의만 되었으면 성실한 운영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Q** 2012년 9월과 2014년 3월 각각 사업협약을 변경한 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유는?
- A** [해양항만수산국장] 2012년 1차 변경 때는 협약이행보증금을 증액하겠다는 내용으로 동의가 필요 없었고 2014년도 2차 변경 때는 확장투자비 산정 및 지급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시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했다. 그런데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2017년도 3차 변경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2020년도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미의결된 사업협약서 일체를 동의받고 치유했다.
- Q**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차례 사업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는 웅동지구 1·2차 개발사업을 미이행하는 등의 사업협약 위반을 했다. 이에 대해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했나?
- A** [해양항만수산국장] 토지사용기간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 Q** 민간사업자의 사업 지연 사유중 하나인 글로벌테마파크 추진은 웅동지구 사업 지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
- A** [해양항만수산국장] 경남도에서 사업구역을 중복 추진한 진해글로벌테마파크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어 못한다고 주장하며 토지사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 Q**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 A** [해양항만수산국장] 경남도에서 주관하고 추진 중에 있는 웅동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협의회를 통해서 정상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Q** 조속한 웅동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 A** [시장] 핵심 관계자인 경남도, 경남개발공사, 창원시, 경자청,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5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모범적인 답안이 나올까라 기대하고 있다.
- Q** 부산항신항 개발은 국가 항만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개발부지의 75%가 창원시 부지이고, 항만배후도시 주민 전체가 창원시민이다. 항만개발에 따른 배후도시 시민의 고통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 A** [시장] 현재 지역 이달곤 국회의원이나 신항과 주민지역상생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굉장히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시도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하겠다.

Q&A



박 선 애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창원시 지속발전을 위한 시 재정건전성 확립 제고의 건

- Q** 민선 7기로 넘어온 지 3년 만에 유동부채액이 3배를 넘었고 금액으로는 2,380억 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급증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 A** **[제1부시장]** 크게 3가지 이유다. 통합 당시 발행한 지역 개발채권 만기상환일 도래,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선수금, 대상·사화 민간공원사업 선수금이다.
- Q** 가용재원의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재정위기감마저 느낀다. 어떻게 보시나?
- A** **[제1부시장]** 공감한다. 현재 재정진단 및 건전성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재정점검단 TF팀을 가동하고 있다.
- Q** 지자체 재정분석평가에서 모든 영역 최하위다. 현재 재정 상태로는 대형시설물을 건립하거나 투자할 재정 여력이 없어보이는데?
- A** **[제1부시장]** 현재 재정점검단 TF팀을 가동하고 있고, 대형투자사업 금액을 50억 정도 잡고 있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 중복 사업은 통폐합 하거나 규모 축소, 사업 중단 방안까지 마련중에 있다.
- Q** 향후 창원시의 부채 감소 노력과 가용재원 확보 그리고 경직성 재정구조 조정 등 효율적 재정 운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시의 정책 방향은?
- A** **[시장]** 창원시는 재정 규모에 비해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대형투자사업, 보조금사업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꾀해 나가겠다.

문화예술도시조성을 위한 지역로케이션 드라마 및 영화촬영 지원 관련

- Q** 창원시가 지난해 문화관광부 문화도시 지정 사전단계인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 A** **[제2부시장]** 알고 있다.
- Q** 한 드라마를 통해 대산면 동부마을의 팽나무가 엄청난 인기가. 천연기념물 지정이 예고되면서 창원특례시 홍보와 함께 관광객 유치, 경제적 효과도 톡톡히 봤다. 우리 시의 노력과 지원도 많았다고 하는데?
- A** **[제2부시장]** 민선8기 들어 가장 창원시를 알린 일이다. 각 파트별로 많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 Q** 창원시를 배경으로 로케이션 촬영한 '카페의 연인' 영화 스태프들이 여러 가지 애로를 겪었다고 한다. 우리 지역에서 촬영하는 드라마나 영화에 문화예술도시로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A** **[제2부시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했다. 이후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광고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신규 파크골프장 건립과 기존 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관해

- Q** 창원시 관내 일부 임의 조성 파크골프장과 관련하여 시가 협회에 원상복구를 통보, 협회는 파크골프 수요 폭증과 회원 신청 급증에 시가 나서서 불법 부분을 양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구했다는데?
- A** **[제2부시장]** 현재 골프협회와 장애인체육회에서 낙동강변을 불법 개설, 사용하고 있다. 시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노력 중이다. 협회나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는 것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이것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 Q**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양성화가 될지 미지수라고 보는데?
- A** **[제2부시장]** 지금 낙동강변에 야구장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잘 협의될 가능성도 있다. 근본적으로 행정적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해서 원상복구하는 게 1차적인 문제라 생각한다.
- Q** 파크골프장 운영을 시설공단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 이와 관련한 입장은?
- A** **[제2부시장]** 지금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 Q**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증가에 대한 시의 입장은?
- A** **[시장]** 가급적 연내에 의회와 협의를 통해 수요에 충족하는 합리적인 계획을 만들어보겠다.

Q&A



이 우 완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 중 홍수터 관련

Q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의 배경과 목적, 사업 경과를 간단히 설명 바란다.

A [안전교통건설국장] 내서읍 신감리에서 삼계리 삼계교까지 4.4km 구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다. 2016년 하천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용적률 97%로 11월에 준공 예정이다.

Q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구간 중 전안초등학교 앞 홍수터의 용도는?

A [안전교통건설국장] 홍수 소통 능력을 원활히 해 홍수량을 저류시켜 하루 홍수량을 경감시키는 비구조물적 홍수 방산 대책이다.

Q 홍수터 조성 당시에 시간당 몇 mm의 폭우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A [안전교통건설국장] 100년 빈도의 확률 강우량으로 설계가 되어 4시간 기준 175mm까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Q 홍수터의 하단부보다 반대편 제방 수위가 더 염려된다. 현장을 다시 점검해 반대편 제방을 높이는 공사를 해야 할 듯 한데?

A [안전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다.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 관련

Q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의 사업비 변경이 있었다. 7억 원을 증액하면서까지 광장을 조성하고 잔디를 식재한 것은 어떤 목적인가?

A [안전교통건설국장] 방지했을 경우 홍수터가 침식 또는 세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을 방지하고 친수시설을 조성, 주민 휴식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Q 혹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사전작업은 아니었나?

A [안전교통건설국장] 아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의 요청으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적 있다.

Q 사업비 증액시 제출한 사업조서에 파크골프장 내용이 들어 있나?

A [안전교통건설국장] 들어 있지 않다.

Q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힐링도시 내서읍이 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 광려천이다. 11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조성 목표는?

A [안전교통건설국장] 생태하천으로의 복원, 힐링공간 제공하는 친환경 하천, 친수 능력 향상을 통해 항구적으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하천을 만드는 게 목표다.

Q 인수위 백서에 따르면 광려천 홍수터에 20억 원을 들어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다. 광려천 하천기본 계획에 나오는 섬들숲과 유사한 개념으로 봐도 되는지?

A [시장] 그렇게 봐도 될 것 같다.

Q 파크골프장 건립을 반대하는 3,000여명의 집단 민원이 있다. 이곳은 파크골프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적절한 대안 부지를 찾아야 할 듯 한데?

A [시장] 주민의 수용성이 떨어지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마련해 보겠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관련

Q 지방선거 당시 창원시장 후보자들에게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당시 시장님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A [시장] 우리 선거캠프의 입장은 마창대교 통행료를 인하한다는 큰 방향성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인 운영 기간, 재정 투자, 요금 인하 등은 이야기한 바 없다.

Q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 현재 진전된 계획이 있는지?

A [시장]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고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 경남도에서 굉장히 고심할 것 같다. 예산이 반영되고 방향성이 나오면 시에서도 같이 노력 하겠다.

Q 경상남도와 (주)마창대교의 협약에 따르면 8년마다 통행요금 500원을 인상하도록 되어있다. 2500원도 비싼데 3000원으로 인상되면 마창대교 이용 시민들의 원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창원시에서 재정투입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A [시장] 현재는 논의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역할 분담과 원가분석도 안 되어 있다. 창원시가 협약당사자는 아니지만 협약 당사자끼리 합의가 될 때 의회와 협의를 거쳐 창원시의 역할을 찾아보겠다.



제117회 임시회

[창원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처리시설 개선 사업비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문

낙동강은 영남권 1천 5백만 명의 식수원으로 대한민국 최대의 수자원이다. 현재 낙동강은 녹조 창궐로 인하여 조류경보제가 발령 중이며 이 때문에 취수장은 녹조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물을 호수로 살수하고 있다.

지난 7월 7일 오전 10시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었다. 또한 하천 수질 4등급에서 생존 가능한 깔따구 유충이 석동정수장의 원수 취수 구역인 본포에서도 검출되었다.

이로인해 상수원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 우리 창원시민들은 2000년 초반부터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창원시민은 2,230억 5,600여만 원을 물이용부담금으로 냈다.

또한 2020년 한해에만 146억 5백여만 원을 냈다.

창원시 정수장의 원수는 모두 낙동강에서 유입되고 있다.

이에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염소 및 활성탄 추가 투입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대책일 뿐이며 가장 최선의 방법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개선하고 정수 생산 전문인력 확보하는 것이다.

창원시 상수 생산 시설은 1980년대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낙동강 말단에서 취수되어 산업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화학물질들이 유입과 고농도 녹조 미생물이 함유된 원수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원수는 응집-침전-여과와 같은 기존 표준정수처리공정으로는 제어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대화된 고도정수처리공정이 도입이 필수적이다. 고도정수처리의 주요한 기작인 활성탄여과지, 소독 살균 시설 운영은 여러 인자들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돗물을 생산해야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을 시민에게 제공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원시의회는 환경부가 안전한 창원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음용을 위해서 창원시 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 개선 사업비 전액을 국비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현대화된 고도정수처리시설로 개선운영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 건의한다.

2022년 7월 26일

창원특례시의회 의원 일동



의회운영위원회



제1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는 소관부서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 일정을 9.15.~ 10.7.(23일간)로 결정했다. 또한 5개 연구 단체의 2022년도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을 심의했다.



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 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또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1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는 소관부서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제1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는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가포동 공영차고지 조성 예정지 등 사업장 6개소를 방문했다.



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는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고운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또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1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부서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제1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진해 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 △금강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듣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또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회성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4건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8월 5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대산정수장과 칠서정수장을 방문해 여름철 녹조 심화에 따른 관내 정수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소관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고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또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의견제시의 건 2건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창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창원단감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8월 24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농촌 활성화 사업이 진행중인 동읍과 진해신항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또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7건의 안건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태화)는 10월 5일부터 양일간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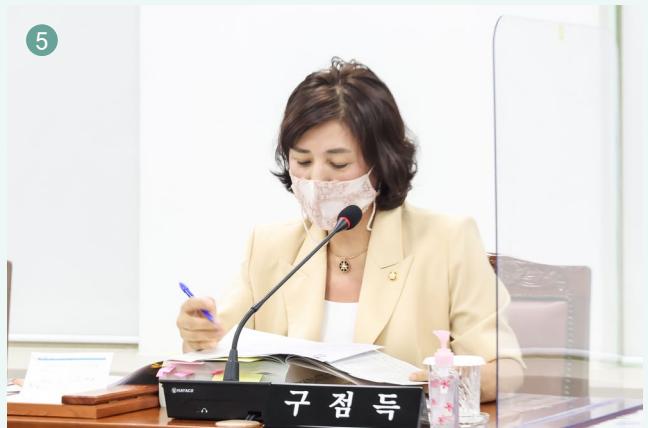


팔릉, 의창동

구점득 의원



- ① 제1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 ② 태풍 '힌남노' 복상 대비 방재시설 예찰활동
- ③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및 회의 진행
- ④ 추석맞이 관내 복지시설 방문
- 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심사



권성현 의원



- ① 권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및 회의 진행
- ② 북면 수영장 유출 발생관련 긴급 의장단 간담회
- ③ 방문 민원인들과 지역현안 문제 면담
- ④ 배수로 민원 현장 방문
- ⑤ 북면 생태공원 자전거 대여소 현장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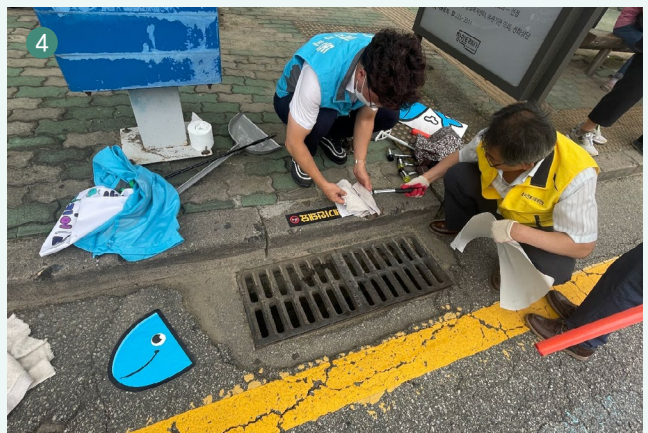


봉림, 명곡동

김남수 의원



- 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 ② 명곡동 추석맞이 마을대청소 활동
- ③ 봉곡민속체험시장 행사 참석
- ④ 봉림동 주민과 바다의 시작 캠페인 활동
- ⑤ 봉림동 노인지회 봉사활동



팔봉, 의창동

김묘정 의원



1 제117회 임시회 '인구감소와 관련한 임신부 지원정책에 대해' 5분 자유발언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3 생활정치아카데미 '창원특례시 미래혁신포럼' 에서 발언

4 의창동 소하천 민원 현장 점검

5 또바기 급식봉사단과 무료급식소 봉사활동





동읍, 대산, 북면

김우진 의원



- 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 ② 대산면민체육대회 마을주민 격려
- ③ 대산파크골프대회 행사관계자와 함께
-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
- ⑤ 도시발전연구회 정책연구용역 보고회



팔용, 의창동

김혜란 의원



- 1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 2 팔용파출소 격려 방문
- 3 소계동 터널 정비 확인
- 4 도시발전연구회 정책연구용역 보고회
- 5 제14회 창원현모회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봉림, 명곡동

안상우 의원



- 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 ②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 ③ 의창노인복지센터 급식 봉사활동
- ④ 의창소방서 봉곡119안전센터 준공식
- ⑤ 청년정책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최은하 의원



- 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심사
- ② 북면 주민과 함께 마을 환경정비 활동
- ③ 수돗물 정수시설 조사위원회 프레스 센터 기자회견
- ④ 제15회 동읍민한마음 문화행사 축사
- ⑤ 창원단감테마파크 방문객 100만명 돌파기념 축하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하반기 연구활동 시동



미래일자리연구회(대표의원 진형익)는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드맵 구축방안 마련」을 주제로 7월 29일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년 일자리 니즈 파악과 과제 방향성을 논의했다. 연구회는 9월 7일 간담회에서 전문가 토론회와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함께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오는 11월까지 세 번의 연속토론회를 개최해 취업률과 직업만족도 모두를 충족하는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 내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년정책연구회(대표의원 최정훈)는 청년 중심으로 새롭게 발족한 단체로 7월 29일 첫 간담회를 개최하며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간담회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 소재 대학 교수진과 타 지자체의 청년정책을 분석·연구하기로 결정했다. 연구회는 9월 14일 '창원형 청년정책' 연구 착수보고회를 가졌으며, 창원 청년층 세분화로 계층별 맞춤형 청년정책을 제시해 시정에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전홍표)는 8월 1일 「대중교통활성화를 통한 창원시 탄소중립 교통정책 마련」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창원 해양자원을 활용한 그린뉴딜 관광사업 육성방안을 연구과제로 삼고 실생활에 도움되는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회는 11월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역 내 원자력 사용 기업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도시발전연구회(대표의원 이정희)는 8월 4일 첫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반기 활동계획과 정책연구과제 선정을 논의했다. '도농간 도시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과제로 정하고 창원시 특성을 반영한 도시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창원시민의 문화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다.

마을공동체활동연구회(대표의원심영석)는 8월 16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회원들과 하반기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을 정책연구 과제로 정했다. 시민들이 살고 싶은 창원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단위 활동과 마을공동체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의원동정

포토광장 PHOTONEWS



2022.7.1. 7월 의장단 간담회



2022.7.1. 창원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 임용식



2022.7.4. 의장단 충훈탑 참배로 의정활동 시작



2022.7.4. 제4대 창원특례시의회 개원기념 촬영



2022.7.4. 제116회 제2차 본회의



2022.7.7. 창동예술촌 개촌10주년 기념식



2022.7.10. 2022 ISSF 창원 월드컵사격대회 개회식



2022.7.16. 제12회 창원사랑 나라사랑 도심숲 걷기대회



2022.7.18. 제117회 제1차 본회의



2022.7.25. 의장단, 시장과 면담



2022.7.27. 삼진119안전센터 소방청사 재건축 준공식



2022.7.28. 제10회 창원시 사회복지사 대회



2022.7.28.
생활정치아카데미
창원시민회의 회장 이취임식



2022.8.9.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2022.8.15.
대혈전의
마산방어전투
개막식



2022.8.15.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창원대종 타종행사



2022.8.23.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관련
시민참여토론회



2022.8.23. 특례시의장협의회



2022.9.1.
추석맞이 복지시설 위문



2022.9.5. 태풍대비 재난방지시설물 예찰활동



2022.9.15. 제118회 제1차 본회의



2022.9.17. 청년의 날 기념식



2022.9.21. 제9대 전반기 첫 시도대표회의



2022.9.23. 긴급 의장단 간담회



2022.9.25. 마산만 전국 트라이애슬론대회



2022. 7. 10. 창원시보 289호



새로워지는 청량산 둘레길과 만날공원



정길상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장)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어릴적 여름날 풍경이 그리운 칠월이다. 한바탕 장맛비가 쏟아지고 나면 찾아오는 무더위에 초록으로 우거진 시원한 숲속을 떠올리며 어디론가 가고 싶어진다. 개울물에 발 담그며 멍하니 짙은 초록잎이 하늘을 가리는 풍경을 보며 몸이 이완됨을 느낀다.

사람들은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과 따스함을 느끼기 위해 가까운 둘레길을 찾아 나선다. 창원시에는 무학산, 천주산, 비음산 등 아름다운 둘레길이 많이 있다. 특히 만날공원에서 청량산으로 이어지는 둘레길을 걷다 보면 아름다움에 취해 한 마리의 학이 되어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든다. 지금은 이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호젓함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워지는 청량산 둘레길에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로 마산합포구 월영동 만날공원에는 창원 최초의 인공암벽장(클라이밍)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전문 암벽동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국제 규격의 전문 암벽장과 초보자가 체험과 강습을 할 수 있는 암벽장이 설치된다. 전문 암벽장은 세계대회도 유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클라이밍 동호인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여기에 만날고개의 단절된 등산로를 잇는 출렁다

리 설치와 유아들을 위한 숲 놀이터도 조성한다. 뿐만 아니라 밤밭고개에 청량산과 무학산을 연결하는 생태보도교가 설치되고 교각 주변에는 작은 공원도 조성된다고 한다. 이로써 청량산 둘레길은 600년 전부터 전해져오는 모녀상봉 전설의 상징적인 의미가 더해진, 걷고 즐기는 매력적인 산책로가 될 것이다.

오래전 조성된 청량산 임도는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다. 길을 걸으며 산새의 노랫소리도 듣고, 나무와 교감하며 자연의 중요성을 깨닫는 산 교육장이 되기도 하고, 고된 삶을 치유하는 힐링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얼마전 완공된 청량산 정상외 해양전망대에서는 마산만과 멀리 거제까지 내다보며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다.

둘레길은 시민의 건강과 정서를 위해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금 생각해본다. 이런 소중한 둘레길을 시민 스스로 지켜가며, 지역 정치인과 행정기관이 힘을 모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마산합포구는 미래가 밝은 곳이다. 새로워지는 청량산 둘레길과 해양누리공원, 창원트레시의 성장동력이 될 해양신도시를 잘 활용하고 개발해 우리 창원트레시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3.15 누리공원을 해맑은 마산만과 함께 창원의 랜드마크로 만들자!



전 홍 표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요즘 마산합포구에 조성된 3.15 해양누리공원이 전국적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산항 서항지구 내 서항부두~제1부두~중앙부두 구간(약 2.3km)를 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의 가시적 결과물이 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항만물류 등 상업적 이용만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에만 집중했던 마산만 서항지구가 생태적, 관광적, 문화적, 여가활용 등 공공 이익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는 오염된 공업지역 그랜빌아일랜드를 재개발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이 사랑하는 친수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 제노바는 구 도심의 항만을 유럽에서 가장 근사한 친수공간으로 재개발하였으며, 영국 카디프도 황폐해진 내항을 재개발하여 도시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는 친수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는 넓은 항만을 재개발하여 유럽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호주 시드니는 넓은 항만공간 전체를 체계적으로 재개발하여 세계적인 모범 친수공간을 만들었으며, 멜버른에서는 항만과 강변을 연계하여 재개발함으로써 도시 전체를 활력이 넘치게 재생시켰습니다. 잘 조성된 친수공간이 쇠퇴하던 도시 해양도시를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은 세계 여러 도시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324km 해안선을 가진 해안도시 창원이 살기 좋은 해양도시, 경쟁력 있는 해양도시가 되고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어 하는 해안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항친수공간의 정비와 더불어 해맑은 마산만 프로젝트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창원특례시의 미래는 해양친수공간 조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맑고 깨끗한 바다와 더불어 조성된 해양친수공간 조성은 창원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더불어 기업들도 찾아올 것입니다. 창원을 떠났던 사람들이 되돌아오고 창의적인 젊은 인재들이 몰려오면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다에 접해있는 3.15해양누리공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시민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으로 새롭게 변화시킨다면 창원특례시는 해양도시로서 위상을 회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도시 이미지와 도시경제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는 깨끗한 바다와 명품 휴식공간을 지닌 창원 시민이라는 자랑을 품을 수 있는 자존감까지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친수공간을 해맑은 마산만과 함께 창원의 랜드마크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해양친수공간을 해맑은 마산만과 함께 창원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힘을 모아 주십시오.



2022. 8. 10. 창원시보 291호



앞으로 4년을 준비하며



이 중 화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아이젠하워가 34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잠시 컬럼비아 대학 총장을 지낼 때 일이다. 당시 대학 본관 앞에 원형으로 된 큰 잔디밭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자꾸 잔디밭을 가로질러 다녀서 잔디가 말라 죽고 심지어 길이 나고야 말았다. 이에 학생들의 잔디밭 통행이 비난 받게 되자 총장이 말했다. '잔디밭 중간에 길을 내어라. 상당수 사람이 원하면 그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라고.

제4대 창원특례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새 한 달이 지났다. 잠시 숨을 고르고 지나온 시간을 뒤 돌아본다. 6월 선거에 유권자들을 향해 호소하던 그 절실했던 심정과 당선된 기쁨을 안겨준 시민들에게 보답하고자 그때의 진심을 상기한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동력으로, 새로운 내일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보자고 다짐하며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정해봤다.

먼저 다양한 분야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는 의원이다. 시민의 깊은 관심과 높은 의식 수준만큼 의원들의 행정력도 세분화·전문화되어야 하며, 의원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소통하는 일꾼이 되어야겠다.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언론 그리고 공무원과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시민들의 지지와 선택으로 당선된 의원으로써 그들의 needs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다.

우리 창원시에는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한다. 작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시행됐다. 의회의 몇 가지 변화들을 통해 이전보다 더 깊이 있게 현황을 분석하고 더 실질적으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되고 인사권이 독립되었다.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을 시의회 의장이 가짐으로써 직원들이 집행부를 의식하지 않고 의원들을 보좌하는 등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의회 행정에 나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올해 처음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의 임무인 조례의 제·개정 및 예산·결산 분석과 의정 자료의 수집·분석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의 기관인 의원에게 폭넓은 분야의 전문성이 중요해진 만큼 정책지원관 제도는 큰 힘이 될 것 같다.

아이젠하워 총장이 내린 결단처럼, 많은 시민이 원하는 것을 관례의 틀에 얽매어 외면하는 일이 없는 민주주의 의원이 되고,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원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겠다. **앞으로 4년간의 의정 활동은 시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소통하고 의논하며 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절치부심과 와신상담



김헌일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나는 평소 선거의 결과는 오로지 후보의 몫이라 믿어왔고,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맛본 패배의 아픔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상처가 아무는 것처럼 나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아픔을 이겨내고자 했다. 그리고 항상 마음속으로 4년은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주문을 걸었다. 그러던 중 2년이 지날 무렵, 어느 한 정치인이 다음 선거에 도전할 것인지에 대하여 내게 물어 왔다. 그 말에 난 지난 2년 동안 절치부심(切齒腐心), 와신상담(臥薪嘗膽)이란 두 개의 사자성어를 잊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정치인이나 수험생, 운동선수들에서 자주 인용되는 고사성어인 절치부심(切齒腐心)은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인다’ 라는 뜻이다. 비슷한 한자성어로 ‘장작더미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맛본다’ 라는 뜻의 와신상담(臥薪嘗膽)이 있다.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라 하겠다.

이처럼 나는 낙선의 충격을 벗어나고자, 더 나아가 새롭게 시의원에 도전하기 위해 이 두 사자성어를 하루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보냈다.

남은 2년 동안 지역구를 비롯한 진해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시민들과 만나 소통했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다. 그렇게 민생을 들여다보고, 또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거친 뒤 당선의 영광을 안아 시민의 공복이 될 수 있었다.

예상치 않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오로지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신념과 노력만이 그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임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우리 창원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임을 가슴속에 새겨놓아야겠다.



2022. 9. 10. 창원시보 293호



북면 감계·무동지역 초·중학교 설립 촉구



권성현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장)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한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도시에 31학급 규모의 고등학교가 첫 신설,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이 해소돼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북면 감계, 무동 지역의 초·중학교는 과밀학급으로 인해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어 학교 신설이 시급하다.

북면은 창원시가 택지난 해소를 위해 제2 창원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대규모 택지를 조성한 지역이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주여건은 빠르게 좋아지고 있지만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 인프라는 수년째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대단위 도시개발을 진행할 때에는 교육수요를 함께 예측해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학생 수요예측에 실패한다면 학습권 침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기약 없는 학교 신설을 기다리며 학부모와 학생 모두 큰 어려움을 감내해야 한다.

지금 북면 감계·무동 지역은 학생 수요예측 실패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처해 있다. 지역 내 초등학교 세 곳은 수차례 증축 공사를 하며 땀질식 수용에 급급해 보인다.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아이들의 피해

는 신규 입주 학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존 재학생에게도 날벼락이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중학교 추가 신설도 계획이 없어 과대학교, 과밀학급은 더욱 늘어갈 것이다. 수천 세대의 학부모를 비롯한 입주예정자들은 자녀 학교 문제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학습여건을 마련해 주길 절실히 바라고 있다.

북면 감계·무동지구 공동주택은 사업 추진 중인 두 곳(2,250세대)을 포함해 입주가 완료된 감계지구 8,258세대, 무동지구 3,926세대를 합하면 총 14,400여 세대가 거주하게 된다.

2022년 7월 기준으로 북면 초·중학교 학령인구(만 6세~만 14세)는 5,633명이다. 2013년 852명 에 비해 4,781명이 증가해 증가율은 561%에 달한다.

북면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수차례 초·중학교 설립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어왔다. 감계·무동지구의 학령인구 수치만 봐도 학교 설립 당위성은 충분히 보인다. 창원교육청, 경남도교육감 그리고 창원시는 대책을 마련해 주민과 함께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초·중학교 신설에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창원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불안한 수돗물! 환경부의 책임을 묻는다.



문 순 규 의원
(부의장)

녹조로 뒤덮인 낙동강은 심한 악취와 오염물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물을 끌어다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창원시민들은 수돗물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매일매일 불안에 마음을 조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7일 진해구 석동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생하였습니다. 창원시는 최초 낙동강 원수를 취수하는 본포취수장에서 유충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후 민관합동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인 유충 발생원인으로 “낙동강 본포취수장의 원수에서 유충(깔따구)이 유입된 것으로 보는 외부적 유입 가능성과, 정수장 침전지, 여과지 등 다수의 시설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내부적 요인에서 기인된 가능성 등 복합적인 요인”이라는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는데 이는 유충이 원수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 관리의 책임기관인 환경부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석동정수장과 같이 낙동강 원수를 사용하는 반송정수장에서는 유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유충발생의 원인이 낙동강 원수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켜 책임을 회피하고 지난 8월8일에는 “원수로부터의 직접 유입 가능성 보다는 유입경로가 다양한 정수장 주변으로부터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수돗물 유충발생의 책임을 창원시에 완전히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대한하천학회와 환경단체가 꾸린 조사단이 지난 7월에 영남권의 가정집과 식당 등 22곳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녹조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모두 6곳에서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 6곳에는 진해구의 가정집도 포함되어 있어 깔따구 유충에 이어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는 발암물질 2군으로 분류하고 있고, 일본학계에서는 “시안화칼륨(청산가리)의 100배 이상 독성”으로 평가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독성물질입니다.

깔따구 유충과 맹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은 낙동강 원수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녹조로 뒤덮인 낙동강 원수의 확실한 수질개선 없이는 더 이상 안전한 수돗물을 기대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창원시민들에게 고개숙여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낙동강의 녹조와 원수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창원시 관내 정수장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조속히 국비를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 창원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월별	회기별	회 기		주요 처리 안건	비 고
	계	10회		• (정례회 50일, 임시회 47일)	
임 시 회	제110회	1.5.(수)	1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111회	1.24.(월)~1.25.(화)	2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112회	2.10.(목)~2.14.(월)	5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113회	3.11.(금)~3.22.(화)	12	• 행정사무감사 사전 준비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시정 질문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일 3.18.(금)
	제114회	4.14.(목)~4.19.(화)	6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115회	5.16.(월)	1	• 의장 · 부의장 보궐선거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116회	7.1.(금)~7.4.(월)	4	• 의장단 선거 (7.1.) • 상임위원회 구성 (7.4.)	창원시민의 날 기념식 7.1.(금)
	제117회	7.18.(월)~7.27.(수)	10	•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 차 정 례 회	제118회	9.15.(목)~10.7.(금)	23	• 행정사무감사 •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 시정 질문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임 시 회	제119회	10. 26.(수)~10.31.(월)	6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 차 정 례 회	제120회	11.25.(금)~12.21.(수)	27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 2023년도 예산안 • 2022년도 추경예산안 • 시정 질문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 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원특례시의회

<http://council.changwon.go.kr>